

[대림산업] 대림e편한세상 실천하는 진심



소비자에 대한 진심, 공감 커뮤니케이션으로 빅모델 없이도 높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갖고 있는 대림e편한세상 광고가 이번에는 '실천'이란 명제를 더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재는 주부아이디어공모전. 모두들 주부아이디어공모전을 하지만 대림e편한세상은 공모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영'을 한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실천하는 진심'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신한은행]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캠페인



신한은행이 박칼린 감독을 모델로 눈길을 끌었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캠페인의 후속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광고는 '동행'의 가치로 제시하는 '믿음'과 '열정'을 박칼린 감독의 역동성에 실어내며 신선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첫 번째 스토리 '믿음'편은 박칼린 감독이 학생들에게 현악 합주를 지도하며,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전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은행이 가져야 할 본질적 가치로 고객과의 믿음과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스토리 '열정'편은 가야금 명인과 함께 교감하는 박 감독을 통해 신한은행의 열정과 프론티어 정신을 전달하고 있다.

[동서식품] 진잔한 사랑 담은 맥심 새광고



정우성과 임수정 커플을 주인공으로 한 동서식품 맥심의 세 번째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헤어질 시간임에도 커피향의 여운처럼 조금이라고 함께 하고픈 연인의 애뜻한 사랑을 담고 있다. 특히 1편 '첫사랑', 2편 '가을이 오면', 3편 '소녀'로 이어지는 이문세 노래의 BGM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고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동시에 세 편의 광고를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광고의 폴스토리는 맥심 브랜드 사이트(www.mymaxim.co.kr)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 에어컨 새광고 눈길



삼성전자가 김연아를 모델로 한 스마트 에어컨 새광고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스마트한 생각의 스마트 터치'라는 컨셉으로 '스마트 에어컨'의 기술 경쟁력과 차별성을 전달하고 있다. 슬림한 디자인과 스마트 컨트롤 기능을 자랑하는 스마트 에어컨은 여름에만 이용하는 냉방기기가 아니라 4계절 내내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마트한 제품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마트(smart), 심플(simple), 섹시(sexy) 키워드를 적용한 3S 광고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리홈] 쿠첸밥솥 새광고



모델 이효리의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연발해 주목을 끌었던 리홈의 쿠첸 압력밥솥 광고가 후속광고를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밥 먹기 싫어하며 울던 아이, 실연의 상처로 식음을 전폐한 실연남, 속 상해 밥상을 물린 시어머니가 이효리의 '밥 한번 먹자'는 권유로 밥을 먹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효리는 쿠첸 광고를 통해 한 설문조사에서 '밥 한번 먹고 싶은 연예인' 1위로 뽑히기도 했다.

나스미디어 태블릿PC 광고상품 출시



KT계열사인 나스미디어가 아이패드용 태블릿PC 광고상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이패드 전용 광고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품 및 브랜드 정보를 하나의 콘텐츠로 제공한다. 태블릿PC는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넓어 디스플레이, 동영상, 만화, 소셜, 영화 등 지면 크기와 형식의 제약이 없어 다양한 광고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광고면에서 제품정보나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CF 동영상상이 구현되는 등 인터랙션 기능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패드에 첫 브랜드 광고를 하는 BMW코리아는 '스토리 오브 BMW'라는 전용 광고를 선보인다. BMW코리아는 기업 철학과 브랜드 이야기 등을 담은 콘텐츠 형태로 아이패드 활용사인 아이고 아이패드'의 지면 광고와 브랜드북 형태를 계승한다. 아이고 아이패드'는 KT의 무료도서 쿠폰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고 KT의 북키예 앱(APP) 사용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국제광고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는 스마트폰 환경에 맞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모바일로 즐기는 광고제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광고제 앱에서는 부산국제광고제에 대한 소개, 2011 행사 안내 등과 더불어 지난 2008년 제1회 부산국제광고제부터 2010년 제3회 광고제까지 역대 광고제 수상작을 모두 볼 수 있다. 이의자 집행위원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광고제를 지향하는 광고제 특성에 걸맞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세계인들이 실시간으로 더 쉽게 광고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2011 광고인 신년교례회



지난 1월 6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주최로 2011 광고인 신년교례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산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국광고주협회 정병철 회장(전경련 상근부회장), 한국광고업협회 김낙희 회장(제일기획 사장), 김인주 방송협회 회장(KBS 사장) 및 우원길 SBS 사장, 김종오 OBS 사장, 이재천 CBS 대표 등 주요 광고계 인사 및 매체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ADC, GAA와 한국대표부 체결 및 2011년 해외광고제 출품작 모집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KCU, 회장 임인규)는 최근 미국 아트